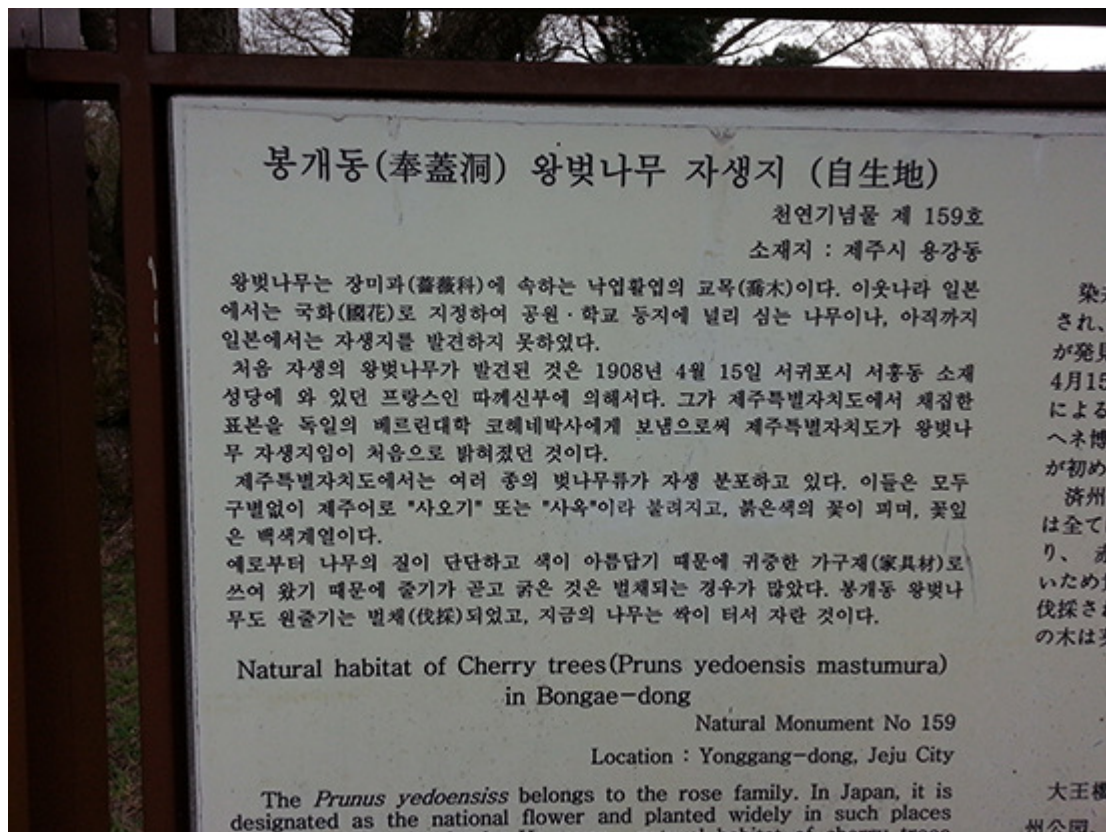


다른 나무 3그루에 같은 안내 문구 '눈살'

수령도 표시되지 않고, 벚꽃이 일본 국화란 틀린 정보까지 버젓이

데스크승인 2014.04.09 김현중 기자 | tazan@jejunews.com



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모두 세 그루다.

이들 세 그루의 나무 앞에는 왕벚나무의 특징과 천연기념물 지정 배경, 자생지 규명 과정, 벌채 흔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서 있는데, 문제는 내용이 모두 같다는 점이다.

특히 '봉개동 왕벚나무도 원줄기는 벌채되었고 지금의 나무는 싹이 터서 자란 것이다'라는 설명까지 세 그루 나무의 안내판 말미에 똑같이 언급돼 있다. 그러나 이 내용은 천연기념물 지정 비석이 설치돼 있는 왕벚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, 나머지 두 그루와는 무관하다.

결국 세 그루의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중 두 그루의 실체는 '영뚱한 문구'에 의해 왜곡돼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. 일본은 공식 국화가 없는데도 벚꽃이 일본 국화(國花)라는 틀린 정보도 표시돼 있다.

또 이들 나무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를 대표하는 것들인데도 수령조차 표시되지 않아 방문객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. 마을 보호수에도 수령이 표기되는 등 나이는 나무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본 사항인데도 이들 왕벚나무에는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

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박사는 "봉개동 왕벚나무들은 50년 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수령이 150년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"며 "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나무라면 나이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"이라고 밝혔다.

김현종 기자 tazan@jejunews.com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